

2021년 6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8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8(화)	담당부서	산업기술시장혁신과
담당과장	이종석 과장(044-203-4540)	담당자	천경찬 주무관(044-203-4545)

산업부, 시장중심의 기술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착수

-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1단계 사업화 상담 지원 대상 38개 기업 선정 -
-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지원 대상 25개 기업 선정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·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「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」과 「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」을 신규 추진한다.
 -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‘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’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「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」과 각 부처 기술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「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」으로 추진된다.
 - * 지원규모 : 총 국비 4,497억 투입, 1,068개 기업 지원('05 ~ '21년)
 - 먼저 「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」은 '20년 예비타당성 조사(총사업비 1,925억원, 국비 1,329억원)를 거쳐 '21년 38개 23억원, 다음으로 「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(총사업비 433억원, 국비 287억원)」은 '21년 25개 113억원을 투자한다.

< 종료 및 신규 사업 비교 >



- ‘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’은 1단계 사업화 상담 → 2단계 기술 개발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, 산업부는 올해 1단계 지원대상 38개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하였다.
 -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사업화 상담 자금(약 0.6억원)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, 디지털 건강관리 등 신산업 분야*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**를 연말까지 완료해야하며,
 - * 첨단 제조공정·장비, 첨단소재 등 스마트제조 15개(39.5%), 디지털헬스케어, 스마트 의료기기 등 13개(34.2%) 등
 - ** 투자유치 조건 : 2단계 R&D 지원금(10억원) 대비 70% 이상의 VC투자(7억원) 필요
 -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:1 사업화 상담,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(IR)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.
- ‘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’은 정부 각 부처의 기술개발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&D 투자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.
 - 동 사업은 금년 25개*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, 선정된 기업은 약 4.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.
 - * 선행 R&D 과제 지원부처 : 중기부 9개(36%), 과기정통부 6개(24%), 해수부 1개(4%), 환경부 1개(4%) 등
-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“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이 중요하다.”고 강조하고
 - “앞으로도, 사업기획 상담·민간투자 유치·기술개발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‘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’과 각 부처 기술개발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‘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’을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천경찬 주무관(☎ 044-203-45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